

Simon Barnes, the chief sports writer for “The Times” newspaper in London, some years ago wrote a moving article, “I’m not a saint, just a parent”. It is about being the father of his second son, Eddie, who has Down’s syndrome. In it, he talks very candidly about the challenges, but also the joys, of being Eddie’s father. At one point he says: “If you find the idea of love uncomfortable or sentimental or best not talked about or existing only in the midst of a passionate love affair, then you will find problems with what I am writing. I am writing of love not as a matter of grand passions, or as high-falutin idealism or as religion I am talking about love as the stuff that makes the processes of human nature happen; the love that moves the sun and other stars, which is also the love that makes the toast and other snacks. Love is the most humdrum thing in lif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the thing that is forever beyond the reach of human imagination”.

런던의 “더 타임즈 (The Times)”지의 수석 스포츠 기자인 Simon Barnes 는 몇 년 전 “저는 성자가 아니라, 그저 부모입니다”라는 감동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는 다운 신드롬을 가진 그의 둘째 아들 Eddie 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그는 에디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어려움들에 대해, 또한 그 기쁨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사의 한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불편하거나 지나치게 감상적인 것 혹은 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든가 정열적인 연애 중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뜨거운 연애의 문제라거나 허세 가득한 이상주의 혹은 종교로서의 사랑에 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 그리고 이는 토스트와 다른 스낵들을 만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단조로운 것이자, 정말 중요한 유일한 것, 영원히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Barnes makes the powerful point that real love is not the love of infatuation or the heart flutter at extreme beauty or the fun of dressing up and going out. Real love is about making toast and cups of tea, of caring for sick children, or for loved ones who can’t remember you anymore. Real love is love that perseveres. That is the sort of love that the prophet Hosea writes about – God’s love that never lets go. God’s love is not something that he falls into or out of, but rather, despite the pain of rejection, his love patiently pursues his beloved – never giving up and never letting go – until the object of his love joins their love with his.

Barnes 는 진정한 사랑이란 열병 같은 사랑이나 아름다운 것에 가슴이 뛰는 것 혹은 잘 차려 입고 외출하는 재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토스트와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 아픈 아이들이나 혹은 당신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적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랑 -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빠지거나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닌, 거부당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의 대상이 그와 사랑으로 하나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손을 놓지 않고 끈기 있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The prophecy of Hosea comes first in the biblical order of the Minor Prophets, the collection of the final 12 books of the Old Testament. And that is rightly so. It is not the first of the 12 either to be written or spoken, but it is first in regard to its message. James Montgomery Boice, senior minister of Philadelphia’s Tenth Presbyterian Church, who died in 2000, suggests that it is the second greatest story in the Bible.

호세아의 예언은 구약의 마지막 열두 책을 모은 소선지서의 성경 순서 상에서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는 열두 예언서가 쓰여진 순서나 예언을 말한 순서가 아니라,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처음에 있습니다. 2000 년에 사망하신 필라델피아 제 10 장로교회 원로목사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호세아 서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Hosea was a prophet in the 8<sup>th</sup> century BC, during the reigns of 4 successive kings of Judah – Uzziah, Jotham, Ahaz and Hezekiah – and during the reign of Jeroboam II, one of the kings of Israel. His prophecy was primarily directed to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It must have been a long period of ministry – perhaps 50 years or more – but we are told nothing about Hosea’s life during those years except the poignant story found in chapters 1-3 of the book bearing his name. The age in which Hosea prophesied was much like our own age and thus the lessons of his story are those we also need to hear. Hosea lived at the same time as Isaiah (who prophesied to Judah in the south) and Amos (who visite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from the rural area of Tekoa). It is from these three prophets that we learn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is age were. To many the period must have appeared to be a good one indeed. It was an age of luxurious materialism, apparent religious devotion and activity, freedom, and even an apparent national security in which politics, law and religion all seemed to play into the favoured people’s hands. Amos is particularly clear in diagnosing this spirit. Yet, as Isaiah, Amos and Hosea also show, it was the worst of times because the hearts of the people were empty, religion was shallow, and there was much corruption. In particular, law was manipulated to the advantage of

(Hosea 1:1-2:1; 4:10-14; 14:1-7; Romans 5:6-8)

the rich, and much, if not most, of the religious activity was mere show. Hosea's cry is that the people have been unfaithful to God, just as an adulterous wife is unfaithful to her husband. The one great sin of which the Lord, through Hosea, accuses Israel is unfaithfulness. God has blessed his people – prospered them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But they had begun to live for pleasure. They had abandoned hard work, morality, and integrity in order to live for themselves. What a parallel to our age in the early decades of the 21<sup>st</sup> Century! However, the long reign of Jeroboam II was nearly over. In the north, Assyria was rousing itself and would soon move south to destroy Israel in 724-722BC. Israel's fate as a nation was in the balance. So to this nation that was cold and indifferent to him, God sent the prophet Hosea with a message of love. The book of Hosea can be split into 2 parts. In chapters 1-3 Israel's and Yahweh's (God's) relationship is pictured. In chapters 4-14 Israel's and Yahweh's (God's) relationship is explained.

호세아는 유다의 가장 성공적인 4 명의 왕 –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의 통치 기간,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 세의 통치 기간이었던 기원전 8 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북 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사역은 아마도 50 년 이상 오래 계속되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호세아 1-3 장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동안 호세아의 삶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듣지 못합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했던 시대는 이 시대와 매우 유사했으며 따라서 호세아 서의 교훈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사야 (남 유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 및 아모스 (드코아 시골 지방에서 북 이스라엘 왕국을 방문했던) 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특성들이 어떠했는지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는 실로 좋아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시대는 호화로운 물질주의의 시대였으며, 명백한 종교적 헌신과 활동, 자유의 시대였으며, 심지어 정치와 법, 종교 모두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던 확실한 국가 안보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특히 이 정신에 대해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역시 보여주듯이,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종교는 알팍했으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법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으며,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종교 활동의 많은 부분은 그저 쇼에 불과했습니다. 호세아의 외침은 음란한 아내가 그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의 큰 죄는 불충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쾌락을 쫓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힘든 일과 도덕성, 진실함을 버렸습니다. 21 세기 초반의 우리 시대와 이 얼마나 유사한지요! 하지만 여로보암 2 세의 오랜 통치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북쪽에서는 앗수르가 분기하고 있었고 곧 남쪽으로 이동해 기원전 724-722 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이 나라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 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3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려집니다. 4-14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가 설명됩니다.

### 1. Israel's and God's Relationship Pictured (chs 1-3)

In chapters 1-3 we have Israel's and God's love pictured in the tragic breakdown of a marriage. It would seem that God came to Hosea, no doubt early in his life, to ask him to do a very difficult thing. God said, "Hosea, I want you to marry a woman who is going to prove unfaithful to you but to whom you are nevertheless going to be faithful. You will love her, but she will disgrace your love. I am asking you to do this because we are to present a pageant to Israel by your marriage. It is going to be symbolic, an object lesson. You are going to play the part of God. Your wife is going to play the part of my people. The reason she is going to run away and be unfaithful is that this is the way my people act in the spiritual marriage that I have established with them. You are going to be faithful, because I am faithful to Israel even though she dishonours my name". So Hosea is told to marry a wife who will be unfaithful to him and to have children with her. The reason given is "because the land is guilty of the vilest adultery in departing from the Lord (1:2). God often asked his prophets to picture their messages through their actions. For example, Ezekiel was told to pack his belongings and dig through the wall of the city while the people were watching, to demonstrate that they were going off into exile. But no prophet was ever given an assignment as heart-rending as Hosea's. He did what he was told and married Gomer. She conceived and bore him a son. Then the Lord said to Hosea, "Call him Jezreel, because I will soon punish the house of Jehu for the massacre at Jezreel, and I will put an end to the Kingdom of Israel. In that day I will break Israel's bow in the Valley of Jezreel" (1:4-5).

#### 1.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려짐 (1-3 장)

1-3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혼 생활의 비극적 파경으로 그려집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호세아 삶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셔서 매우 어려운 일을 하도록 이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라 하지만 너는 그럼에도 그 여자에게 충실할 것이다.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할 것이지만, 그 여자는 너의 사랑에 수치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너의 결혼으로 이스라엘에게 야외극을 하나 보여주려 함이다. 이는 상징적이며, 객관적인 교훈이 될 것이다.

(Hosea 1:1-2:1; 4:10-14; 14:1-7; Romans 5:6-8)

너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내는 내 백성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아내가 도망쳐 간음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백성들이 내가 그들과 세운 영적 결혼 생활에서 행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럼에도 네 아내에게 충실할 것인데, 이는 내가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더럽힘에도 이스라엘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 자식들을 낳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어진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1:2)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의 선지자들이 행동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그리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은 그들이 망명을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성들이 보고 있을 때 자신의 소유물을 꾸러 성벽을 파나가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호세아만큼 가슴이 미어지는 임무를 받지 않았습니. 호세아는 말씀 들은 대로 행하여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1:4-5).

The first of these children seems to have Hosea as his father because the text says, “she bore him a son” (1:3). That is probably not the case for the next two children. In verse 6 of chapter 1, she conceived again and gave birth to a daughter who was named Lo-Ruhammah. Then in verse 8, after she had weaned Lo-Ruhammah, she had another son who was to be called Lo-Ammi. The names God told Hosea to give his children are names that shock. They are names that convey judgment – and the warnings of judgment increase in severity with each new child. Jezreel means “scattered”. Lo-Ruhammah means “not loved”. And Lo-Ammi means “not my people”. This dysfunctional marriage and family powerfully and poignantly picture Israel’s relationship with Yahweh. They are unfaithful. They have raced off after other gods and forsaken the one true God, their covenant partner, Yahweh. The fruit of that unfaithfulness will be judgment – a people scattered to the nations, a people who are not loved and forsaken as God’s people. It’s a tragic picture. But it gets worse because in chapter 3, although Gomer has been unfaithful to Hosea and has no doubt broken his heart, he is told to go and buy her back – either by paying a prostitute’s fee for her, or else purchasing her from the slave market: “The Lord said to me,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though she is loved by another and is an adulteress. Love her as the Lord loves the Israelites, though they turn to other gods and love the sacred raisin cakes”. So I bought her for fifteen shekels of silver and about a homer and a lethek of barley. Then I told her, “You are to live with me many days; you must not be a prostitute or be intimate with any man, and I will live with you” (3:1-3). After buying her back, Hosea betrothes her to himself in faithfulness. Hosea pictures for us in a most compelling way God’s amazing love for his people. Hosea goes and buys back his own wife: he forgives her past and instructs her to be faithful from now on. What we see here is not a love that is romantic or trivial, but a love that is costly. This is God’s love for his wayward people. God’s love doesn’t give up. It doesn’t say, “I don’t love you any more”, although it has every justification to do so. Rather it is a love that persists and pursues.

이 자식들 가운데 첫째는 호세아가 그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에서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1:3)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음에 태어난 두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장 6 절에서 그녀는 다시 임신해 딸을 낳았고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8 절에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 떼 후에 다시 아들을 낳아 로암미라 이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그 자식들의 이름은 충격적인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은 심판을 전하는 이름이며, 심판에 대한 경고는 새로운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그 강도가 세집니다. 이스르엘은 “흩어짐”을 뜻합니다. 로루하마는 “사랑 받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님”을 뜻합니다. 이처럼 제 기능을 못하는 결혼과 가족은 이스라엘과 야훼의 관계를 강력하고 통렬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은 불충실합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좇아 달려가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 그들의 언약의 배우자인 야훼를 저버렸습니다. 그 불충실함의 열매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 백성들은 온 나라로 흩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 나빠지는데, 3 장에서 고멜이 호세아에게 불충실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그 여자에 대한 창녀의 비용을 치르든지 아니면 노예 시장에서 그 여자를 사든지 어찌하든 가서 그 여자를 사라고 듣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3:1-3). 그녀를 다시 산 후에, 호세아는 서로 음행하지 않기로 하며 그녀와 혼약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가장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가서 그 자신의 아내를 다시 삽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음행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낭만적이거나 하찮은 사랑이 아니라 대가가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루기 힘든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Hosea 1:1-2:1; 4:10-14; 14:1-7; Romans 5:6-8)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요하고 끈질기게 쫓는 사랑입니다.

## 2. Israel's and God's Relationship Explained (chs 4-14)

The remaining chapters of the book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Yahweh and Israel by drawing on the same imagery used in the first 3 chapters of the book: that of an adulterous relationship. Hosea first of all makes a statement, which is essentially a charge against the people: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Israelites, because the Lord has a charge to bring against you who live in the land: “There is no faithfulness, no love, no acknowledgment of God in the land. There is only cursing, lying and murder, stealing and adultery; they break all bounds, and bloodshed follows bloodshed” (4:1-3). The core of this charge is that there is no faithfulness to, or love for, God in the land.

### 2.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설명됨 (4-14 장)

호세아 서의 나머지 장들은 이 예언서의 첫 3 장에 나온 것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간음하는 관계. 호세아는 먼저 진술을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4:1-2). 이 고소의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 charge is then filled out in more detail in the rest of chapter 4 and in subsequent chapters: Israel's lack of faith and of love for God shows itself in a love of other gods and other nations. Like Gomer, Israel races off after other gods – gods of wood and stone – the worship of whom involves them in fertility cults with their associated cultic prostitution. Hosea speaks of this in the passage we read from Hosea 4:10-14. Not only was the nation allying itself with foreign gods, but also coupling itself with foreign powers, rather than relying on God (Yahweh) to rescue them: “Ephraim is like a dove, easily deceived and senseless – now calling to Egypt, now turning to Assyria” (7:11). It is clear in this section that God crafts the punishment for his people to fit their crimes. They have pursued other lovers (gods) so their punishment is that these unions will not be fruitful. They will have wombs that miscarry and breasts that are dry (9:14). And if they have children, they will be slain (9:16). Similarly, God tells them that their continued love for foreign nations will result in their defeat by those very nations; “Israel is swallowed up; now she is among the nations like a worthless thing” (8:8).

이 고소 내용은 4 장의 나머지 부분과 다음 장들에서 보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부족은 다른 신들과 다른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 – 나무와 돌로 된 신들 – 을 쫓아 달려가고, 그 신들에 대한 숭배는 그들을 풍요제에 참여하고 그와 관련된 성전 매춘에 빠지게 합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4:10-14 의 단락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과 연합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구하도록 하나님 (야훼)께 의지하기 보다 이방 세력과 결합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7:11).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세심히 만들어내시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른 연인 (신들)을 쫓았고 따라서 그들의 벌은 그러한 연합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궁과 젖이 없는 유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9:14). 또한 자녀를 갖는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9:16).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이방 국가에 대한 그들의 계속되는 사랑이 바로 그 국가들에 의해 그들이 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8:8).

Although they will be punished for their sin, they ought not to doubt God's deep love for them. His love is constant and strong – surely God will never say to his people, “I don't love you any more”? This is given powerful expression in chapter 11 of Hosea: “How can I give you up, Ephraim? How can I hand you over Israel? How can I treat you like Adnah? How can I make you like Zeboiim?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all my compassion is aroused” (11:8). Although God will punish Israel for their sin, he is not punishing them as an enemy but as a loving father who wants the best for his children. The same reminder is given to Christians in the New Testament by the writer of Hebrews: “And you have forgotten the word of encouragement that addresses you as sons: “My son, do not make light of the Lord's discipline, and do not lose heart when he rebukes you, because the Lord disciplines those he loves and he punishes everyone he accepts as a son”.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God is treating you as sons” (Hebrews 12:5-7a). In that hard love God wants to bring a harvest of righteousness and peace in our lives (Hebrews 12:11).

비록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심판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강합니다 – 분명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11 장에서 호세아가 한 강력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Hosea 1:1-2:1; 4:10-14; 14:1-7; Romans 5:6-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11:8). 비록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이스라엘을 벌하실 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벌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를 상기시키는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주어져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히브리서 12:5-7a). 그 힘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11).

Though the Israelites will go off into exile, exile is not designed to be the end. There is a way of return: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Your sins have been your downfall! Take words with you and return to the Lord. Say to him: “Forgive all our sins and receive us graciously, that we may offer the fruit of our lips”” (14:1-2). The way of return is through words of repentance. Not the type of repentance depicted in the early verses of chapter 6 where there is no true acknowledgment of sin, no genuine sorrow for sin and there is a presumption that God will pardon because he always does (6:1-2). Rather, there is to be a genuine brokenness and sorrow over their sins and a returning to the Lord and his ways. They have sinned and chased after other lovers just as Gomer did. But if they return to God with genuine words of repentance, seeking God’s forgiveness, he will forgive all their sins and graciously receive them – indeed offer them healing and restoration, as we read in 14:4-7.

이스라엘 민족이 망명을 가더라도, 그 망명은 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열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14:1-2). 돌아오는 길은 회개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6 장의 앞부분에 묘사된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거나, 지은 죄에 대한 참된 슬픔 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추정하는 (6:1-2) 그런 종류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보다는, 그들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고멜이 그러했듯이 다른 연인들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롭게 그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 우리가 14:4-7 에서 보듯이, 실로 치유와 회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Hosea depicts the costly love of God in a most powerful way. The image of Hosea, whose name means “salvation”, scraping together his money, and heading off in the depths of the night to the red light district to buy back his own wife, is a picture of incredible love! But it is, as J.M. Boice says, only the second greatest story in the Bible. The greatest story is the gospel: God in his incredible love sending his own Son Jesus into the world to pursue men and women – and then having found them, giving up his own life to death on a cross to purchase them for God. As Paul writes: “You see, at just the right time,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Very rarely will anyone die for a righteous man, though for a good man someone might possibly dare to di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6-8). Indeed, what is the story of Hosea if it is not the story of ourselves as members of that body, the church, which is the bride of Christ? We are Gomer, and God is Hosea. He married us when we were unclean. He knew we would prove unfaithful again and again. He knew that we would forsake him. Still he loved us and redeem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s sacrificial death. He has purchased us for himself to be a bride “without stain or wrinkle or any other blemish, but holy and blameless” (Ephesians 5:27) – and he has done this even though he knew in advance that we would often prove faithless.

호세아는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가진 돈을 긁어 모아 그 자신의 아내를 사기 위해 한 밤중에 흥등가로 향하는 이미지는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J.M. Boice 가 말하듯이, 그것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들을 쫓으시는 하나님 –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어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바울이 적고 있듯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6-8). 실로, 호세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지체의 일원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멜이고, 하나님은 호세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정할 때 우리와 혼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둬하여 음행을 저지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를 저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Hosea 1:1-2:1; 4:10-14; 14:1-7; Romans 5:6-8)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에베소서 5:27) 신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 또한 그분은 우리가 종종 충실하지 못할 것임을 미리 알았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There are lessons here for those who are Christians. You may not have run so far from God as Gomer ran from Hosea. You may not have been so unfaithful as to deny him and seek other gods. But you have certainly flirted with other gods. You have taken the selfless and sacrificial and abundant love of your great bridegroom and lover Jesus Christ with less obedience and respect than he deserves. You have been half-hearted in your love. You have disgraced his name in small ways if not large ones. Repent. Learn what a horror spiritual adultery is, and flee from it to Christ. Enjoy the embrace of Christ. Tell him of your love. Do not continue in disobedience. 여기 크리스천들을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멜이 호세아에게서 도망친 것만큼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들을 구할 만큼 그렇게 불충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신들과 가벼운 연애를 즐긴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대한 신랑이자 연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풍성한 사랑을 그가 받아야 마땅한 것보다 덜한 순종과 존중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에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크고 작은 방식으로 먹칠을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영적 간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배우고, 거기에서 도망쳐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끌어안으심을 즐기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불순종을 계속하지 마십시오.

There are also encouragements here for those who are not yet Christians. If you are not a Christian, you have never known a love like this. You may be wondering if it is possible for someone like yourself to be loved by God in this way. If so, know that what you feel of your own inadequacies is true of all who are brought into God's spiritual family. We were all in fellowship with God once....in Adam. Since then we have gone our own way. We may be described as “Scattered”, “Not-loved”, “Not-God's People”. It is for people like us that Christ died. If you are touched by this story and sense that Christ died for you, then do not let thoughts of your own inadequacies or past sins hold you back. Run to him. Believe on him. Know for yourself that Christ's love really is as the story of Hosea and Gomer describes it.

여기에는 또한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결코 이 같은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적절함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인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아담으로. 그 이래로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흩어졌고”, “사랑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이야기에 감동받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느낀다면, 자신의 부적절함이나 과거의 죄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임을 자신의 힘으로 아십시오.

The story of every person who has ever been saved is the same: “Scattered!” “Not-Loved!” “Not-My-People!”. But now, through Jesus Christ, “Planted!” “Loved!” “The People of God!”.

지금껏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같습니다: “흩어져” “사랑 받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아닌”.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에 심어진바 되고” “사랑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Amen